



# 보도참고자료

2020. 11. 24.(화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## 유은혜 부총리-대교협·전문대교협 회장단 회의 결과

- 실험·실습·실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
- 「대학별 평가 집중관리 기간( '20.12.1~22)」 운영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24일(화)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교협)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(전문대교협) 회장단과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대학별 평가를 위한 주요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협의회 회장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을 감안하여 각 대학들이 실험·실습·실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대해 공감하였다.
  -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12월1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 평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-대학-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대학별 평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  - 아울러, 교육부-대학간 실무회의를 통해 대학별 평가 및 2학기 학사운영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은 관련 지침에 따라 2학기 학사운영과 대학별 평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대학의 자원을 총 결집하여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.
-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회장단은 대학들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는 학생-교수 간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대면/대면수업을 병행하면서

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,

- 대학별 평가의 경우, 수시전형 면접고사 시 유리로 칸막이 세우거나 학교 내에서 면접관과 응시생의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영상으로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대교협·전문대교협 회장단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함께 공감하였다.
-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및 대학별 평가 대응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
  - 최근 학생들의 감염경로가 학외 소모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생들의 자발적 경각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들이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점검하고 방역관련 유의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적극 알리면서 소통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.
  - 특히, 대학별 평가가 끝난 이후 학교 밖에서도 수험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평가 당일 부모님 동반 자제 요청 등 학교 밖 학생들의 생활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.

